

# 프로야구 왕별 가린다... KIA 최형우 '타올상'

30일 시상식... KT 로하스 MVP·소형준, 신인상 유력  
두산 알칸타라, 투수 2관왕... 퓨처스리그도 부문별 시상



올 시즌 KBO리그 '최고의 별'이 30일 가려진다. 창단 첫 '가을 잔치'에 성공해 조명을 받은 KT 위즈가 시상식에서도 주인공이 될 전망이다. '2020 신한은행 SOL KBO 시상식'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그랜드볼룸(7층)에서 열린다. 이날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MVP와 신인상 주인공이 발표된다. 이미 투표는 완료됐다. 정규시즌이 끝난 다음 날인 지난 1일 MVP와 신인상 투표가 진행됐다. 올 시즌 KBO리그를 담당하는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언론사와 각 지역 언론사 취재기자 112명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규정타석 또는 규정타석을 채우거나 개인 타이

틀 부문별 순위 10위 이내의 모든 선수가 MVP 후보가 됐다. 신인상은 2020년 입단했거나 올 시즌 처음 등록된 선수에게 후보 자격이 주어졌다. 또 올 시즌을 제외한 최근 5년 이내 선수 가운데 누적 기록을 따져 투수는 30이닝, 타자는 60타석을 넘지 않는 선수가 대상이 됐다. MVP는 1위부터 5위(1위 8점, 2위 4점, 3위 3점, 4위 2점, 5위 1점)까지, 신인상은 1위부터 3위(1위 5점, 2위 3점, 3위 1점)까지 순위를 정해 투표가 진행된다. 개인별 득표 점수를 합산해 최고 점수를 얻은 선수가 MVP와 신인상 수상자가 된다. 최고 점수를 받은 선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위 표를 더 많이 받은 선수가 트로피를 가져간다. MVP는 트로피와 상금 1000만원, 신인상 주인공은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을 받는다. KT 투타의 주역이 트로피를 쥘 전망이다. KT의 '4관왕' 로하스 주니어가 가장 강력한 MVP 후보로 꼽힌다. 로하스는 시즌 마지막 주 KIA 최형우에게 '타격왕' 타이틀은 내줬지만 홈런 (47개), 타점

(135개), 득점(116개), 장타율(0.680)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신인상은 일찌감치 '고졸 루키' 소형준이 예약해냈다. 소형준은 데뷔 시즌에 3.86의 평균자책점으로 13승 6패를 기록하면서 SK의 잠수함 박종훈과 토종 다승 공동 1위에 등극했다. 소형준의 수상 여부보다는 1위 표를 얼마나 독식했느냐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올 시즌 부문별 1위 자리에 오른 투타의 핵심 선수들과 우수 심판 위원도 단상에 오른다. 이들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퓨처스리그 부문별 1위 선수에 대한 시상식도 이뤄진다. 상금은 100만원이다. 로하스가 타자부문 8개 트로피 중 4개를 싹쓸이한 가운데 최형우(0.354·타율상)와 함께 NC 박석민(0.436·출루율상), 두산 페르난데스(199개·안타상), KT 심우준(35개·도루상)이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다. 투수 부문에서는 두산 알칸타라가 승리상(20승)·승률상(0.909) 등 2관왕에 올랐다. 키움 요키시(2.14·평균자책점)·조상우(33개·세이브상), 롯데 스트레일리(205개·탈삼진상), KT 주권(31개·홀드)도 트로피를 받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형우

## “유튜브로 모여라” 호랑이 가족 잔치 한마당

28일 오후 3시부터 생중계  
토크쇼·레크리에이션·랜선 사인회

'호랑이 군단'이 랜선으로 팬들과 2020시즌을 돌아본다. KIA 타이거즈가 28일 오후 3시부터 온택트(Ontact·온라인대면) '2020 호랑이가족 한마당' 행사를 연다. KIA는 매년 시즌이 끝난 뒤 챔피언스필드에 팬들을 초청해 팬들과 함께 하는 '호랑이가족 한마당'을 개최했다.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지만 올 시즌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온라인 생중계로 행사를 진행한다. 선수단은 KIA 타이거즈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을 하며, 다양한 비대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사는 ▲시즌 영상 상영 ▲선수단 인사 ▲선수-팬 토크쇼 ▲팀 대항 레크리에이션 ▲선수장기자랑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에 앞서 '랜선사인회'도 준비됐다. 26일 이창진, 최원준, 박찬호, 김태진이 먼저 랜선으로 팬들을 만난다. 27일에는 김선빈, 김규성, 고영창, 임기영이 랜선 사인회에 참여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해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호랑이가족 한마당 행사.

(KIA 타이거즈 제공)

## 김세영, 0.41점차 고진영 추격

女 골프 세계 1위 집안 싸움

한국 선수들끼리 벌이는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경쟁이 치열해졌다. 24일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을 보면 고진영(25)이 지난해 7월 말부터 1년 4개월째 계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세계 랭킹 2위 김세영(27)이 23일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펠리컨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고진영을 바짝 추격했다. 지난주 세계 랭킹에서 고진영과 김세영의 랭킹 포인트 격차는 1.03점이었었다. 고진영이 7.90점이고 김세영은 6.87점이었었다. 하지만 김세영이 LPGA 투어 대회를 제패하며 이번 주 랭킹에서는 고진영이 7.79점, 김세영은 7.38점으로 둘의 간격은 0.41점으로 좁혀졌다. 김세영은 이번 대회 우승 뒤 인터뷰에서 "올해 목표가 도쿄 올림픽 금메달이었는데 올림픽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세계 랭킹 1위를 새 목표로 잡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고진영은 올해 LPGA 투어 대회에 한 번도 출전하지 않다가 이번 펠리컨 챔피언십에 처음 나와 공동 3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12월 3일 미국 텍사스주 더폴로니에서 개막하는 LPGA 투어 아메리카 볼런티어스 클래식에는 고진영만 출전하고, 김세영은 불참하기 때문에 다시 고진영이 격차를 벌일 기회다. 세계 랭킹 10위 내에는 고진영, 김세영 외에 5위 박인비(32), 9위 박성현(27), 10위 김효주(25) 등 한국 선수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 아재 개그·트위터 소통... '옆집 아저씨' 된 구단주

뉴욕 메츠 새 구단주 코언  
팬들과 실시간 질문·답변  
'스티브 아저씨' 별명...팔로워 9만명

미국 연예 전문 잡지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는 23일(한국시간) 제니퍼 로페즈의 '2020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공연 영상을 자사 트위터에 올린 뒤 "J-LO(로페즈의 애칭)가 못하는 게 있을까?"라고 썼다. 이를 본 메이저리그(MLB) 뉴욕 메츠의 새 구단주 스티브 코언(64)이 한마디 했다. "힌트를 줄게요. 뉴욕에 있는 팀이에요." 미국 헤지펀드 SAC캐피털 설립자인 코언은 지난 9월 메츠를 24억달러(약 2조8000억원)에 인수하고 새로운 주인이 됐다. MLB 거포 출신의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그의 연인 로페즈도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자금이 무려 146억달러(약 17조원)에 달하는 코언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코언의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포브스'가 발표한 2020년 세계 100대 부자

리스트를 참고하면 된다. 코언은 77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별세한 고(故)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이 두 계단 높은 75위였다. 드라마 '빌리언스'에서 헤지펀드 '엑스캐피탈'을 운영하는 억만장자 바비 엑슬로드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진 코언은 구단주 취임 기자회견에서 "3~5년 사이에 우승을 노리겠다"고 선언했다. 막대한 재력을 앞세워 팀 전력을 단기간에 급상승시킬 수 있는 대형 자유계약선수(FA)를 영입하고 구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팬들은 환호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코언 구단주는 그 이상이 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며 메츠 팬들의 마음속으로 빠르게 파고들었다. 어떤 질문이나 요청이든 피하지 않고, 때로는 '아재 개그'를 하는 그를 메츠 팬들은 '스티브 아저씨'라고 부른다. 그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벌써 9만명이 넘었다. 미국 유력지 '뉴욕 타임스'는 "SNS에서 코언 구단주는 팀의 전임자에게서 느낄 수 없는 친근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령 한 팬이 코언 구단주에게 '바비 보니아 데이'를 끝낼 수 있도록 보니아에게 빚진 1800만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자 그는



코언

저리코 팬들은 매년 7월 1일을 '바비 보니아 데이'라고 부른다. 코언 구단주는 팀의 스타플레이어인 로빈슨 카노가 금지약물에 적발되자 카노의 연봉을 다른 선수들에게 쓰겠다고 밝혀 팬들을 기쁘게 했다. 구단 프런트 개편에 관한 무마를 차단하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하는 등 코언 구단주는 트위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쓰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은둔형 이미지였던 코언이 메츠 구단주가 된 이후에는 트위터 스타덤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